

## 장애인의 날, 소외된 중생 향한 손길

# “장애인 교육기관 설립 추진하겠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장애인날(4월20일)을 맞아 지난 18일 불교계시설인 군포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 복지관 임직원과 장애인들을 격려했다. 총무원장 취임 후 매달 복지시설이나 소외이웃을 방문해 격려, 위로하고 있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불교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장애인포교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불교계 장애인 대학 설립과 장애인 근로자 취업 지원이 절실하다는 군포장애인종합복지관장 다레스님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배석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종선스님에게 이를 심도있게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대학 진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는 비인간 대학이라고 진학하는 게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된다고 하니 각종학교나 중앙승가대 부설 교육기관으로 장애인대학을 설립해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건널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이어 “장애인에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취업을 통한 생계유지”라며 “서울 근로 사찰 부지에 장애인들이 일

### 총무원장 자승스님, 군포장애인복지관 방문

할 수 있는 장애인근로자취업장으로서 초공장을 건립하는 것은 어떤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군포장애인종합복지관장 다레스님과 면담에 이어 장애인복지증진에 사용될라며 금일봉을 전달했다. 또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도시공민 및 복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3층 이하만 설치 가능한 도시공원 내 장애인복지관 설치규정을 군포시청과 복지관이 함께 개정운동을 전개해

개정한 뒤, 복지관을 증축해 부족한 공간문제를 해결하는데 대해 치하를 아끼지 않았다.

총무원장 스님은 면담 후 자동차 부품용 고무제품과 사은품용 색연필을 생산하고 있는 복지관 내 보호자업장 등을 둘러보며, 장애인들에게 “힘들지만 맑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

해달라”고 격려했다.

이와함께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부처님오신날(5월10일)을 일주일 앞둔 오는 5월3일 전남 고흥군에 위치한 소록도를 방문, 한센병환자를 위로한다. ‘조계종 총무원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소록도를 방문하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한센병환자들과 함께 되새기며 희망을 잃지 말고 건강하게 살 것을 기원하게 된다.

군포=박인택 기자 parkintak@bulgyo.com



장애인의 날을 앞둔 지난 18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군포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보호자업장의 장애인들을 격려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불기 2555년 불자대상

## 이수근 김혜옥 방귀희 이기홍 김상기故 앙드레김 ‘선정’

5월10일 시상식

불기 2555년 불자대상에 배우 김혜옥, 방귀희 숯대문학 발행인, 이기홍 체육인복지연합회장, 방송인 이수근, 김상기 육군참모총장, 패션디자이너 고(故) 앙드레 김이 선정됐다. 조계종 불자대상선정위원회(위원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지난 18일 불자대상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선정했다.

배우 김혜옥 씨는 방송과 영화를 통해 불멸홍포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불교방송 ‘아름다운 초대’ MC로 활약하고 있으며,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로서 생명나눔운동을 앞장서 실천하고 있다.

방귀희 숯대문학 발행인은 불자 장애인으로서 국내 유일의 장애인

문예지(숯대문학)를 20년간 발행하며 장애인문학의 지평을 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전문방송가와 작가로 활약하며 불교의 인간존엄과 평등사상을 실천하며 전하고 있다.

이기홍 체육인복지연합회장은 체육인복지회 창립과 더불어 태릉선수촌과 올림픽공원에 범당 개원을 이끄는 등 체육인복지의 신심증장에 크게 기여했다. 체육인복지의 심신 안정과 마음의 평화를 바탕으로 지도한 결과, 2010년 광주아시아게임에서 선수단장으로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는 쾌거를 이룩했다.

방송인 이수근 씨는 불자라는 자긍심을 갖고 소신있게 불교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연예인 불자다. 대중연예인으로서 조계종 신도증 모델로 활동하는 등 적극

적인 신행활동을 바탕으로 불교대중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김상기 육군참모총장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군인의 책무를 다하며 모범적인 신행활동으로 군포교화활동을 선도했다. 또한 군대 종교시설 개선에 주력하는 등 젊고 패기있는 군인 불자들에게 불법을 전하는데 앞장섰다.

패션디자이너 고 앙드레 김은 생전에 한국 패션계를 선도하는 디자이너로 존경받으면서 자신의 작품에 불상을 그려 불교문화를 전세계에 알리는 등 조용하지만 심지 굳은 불자로 활동해왔다.

한편 불자대상 시상식은 오는 5월10일 오전10시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되는 부처님오신날 불국법요식에서 함께 진행된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bulgyo.com

## “부처님전에 올린 願, 부처님께 회향”

### 전 재산 장학금 쾌척한 김순이 공양주 보살

사찰 공양주를 살며 평생 모은 보시금을 동국대 경주캠퍼스 장학금으로 쾌척한 재가불자가 있어 훈훈함을 주고 있다. 사연의 주인공은 나무심장학회 김순이(57, 법명 나무심·사신)이사장이다. 그는 지난 2010년 공양주 소임을 하며 모은 2000만원과 거제시 아파트를 인제양성에 써달라며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전했다. 학교에서는 법명을 따 ‘나무심장학회’를 만들었다. 지난 13일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그는 “공양주를 하며 보시금을 받을 때마다 불자들이 사찰에 보시한 원(願)이기 때문에 항상 내 것이 아니었다”며 “신도들이 부처님 전에 올린 원이니 부처님께 회향해야 한다고 늘 마음먹고 있었다”고 한다. 김 이사장 보시행의 첫 걸음은 시신기증이었다. 자신이 죽고 난 뒤에 도 사회에 회향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다가 시신기증을 생각해 낸 것이다. 사후 시신기증을 계기로 시작된 보시행은 재산기부로 이어졌



다. 지난해 6월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기부했고, 같은 달 2000만원을 학교에 전달했다. 그의 기탁금으로 탄생한 나무심장학금은 가정형편은 어렵지만, 신심이 깊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지원된다. 올해는 양인석(불교학전공 3), 유건희(의학 2)씨에게 각각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앞으로 학기마다 2명을 선발해 학비를 후원해줄 예정이다. 어현경 기자 eonahk@bulgyo.com

### 알림

수좌스님들과 함께하는 중국 선종사찰 순례

본지에서는 전국 선원에서 정진하시는 수좌스님 17분을 모시고 21일부터 27일까지 7 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항주와 소주, 천태산, 영파 등에 산재한 선종사찰을 순례합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선종사찰 순례는 중국 선사들의 구도행과 한국 선불교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구범여행으로 마련됐습니다. 순례 내용은 부처님오신날 특집호를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불교신문사

## “연등물결 넘실거릴 날 기약”

### 부처님오신날을 준비하는 사람들 ⑧ 울산불교신도회

남녘에서 출발하는 꽃망울이 봄을 수놓아 가듯, 한 발 앞서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를 준비하는 전령들이 있다. 울산광역시 불교신도회(회장 고태인) 임원들이 그들이다. 바쁘게 생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촌음을 아껴가며 벌써부터 부처님오신날 만등불사 장엄을 위한 모연에 들어갔다. 이들이 장엄하는 만등은 울산 시내를 가로지른다. 도시의 중심 태화교, 번영교, 울산교 등 울산의 남북 방향으로 길게 이어진다. 한 사람의 소원이 새겨진 형형색색 아름다운 연등의 물결이 울산 시내에 넘실거릴 날을 기약하며 작업에 분주하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만등불사를 모연 중인 울산불교신도회.

### 만등불사 모연 ‘비지땀’ 1만2000 燈 30일 점등

한편에서는 1만2000등을 줄줄이 매달 강철와이어가 설치되고 있다. 와이어에 전선을 묶고 전구에 연등복 방향으로 길게 이어진다. 한 사람의 소원이 새겨진 형형색색 아름다운 연등의 물결이 울산 시내에 넘실거릴 날을 기약하며 작업에 분주하다.

회장이 진두에서 지휘하고 있다. 고태인 회장은 신도회와 신행단체 임원들에게 “울산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법의 씨앗을 심어 가꾼다는 심정으로 만등불사에 임하자”며 “우리의 꿈과 정성이 모아진다면 울산광역시 전체가 불국정토로 거듭날 것”이라고 독려했다. 주야와 휴일을 잊은 이들의 열정 덕분에 부처님오신날은 이미 우리 앞에 성문 다가온 듯 하다. 정병은 경남동부·울산지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신도증**  
 성명 이수근  
 법명 현각  
 재적사찰 | 극락사  
 2553 0004 0040 0001  
 위 사원은 대한불교조계종 신도증발급 운영함.  
 불기 2553년 07월 1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 ‘자성과 쇄신 결사’

## 조계종 신도등록이 그 첫걸음입니다

- ◎ 신도등록은 종단과 불교의 힘을 키우는 불사입니다.
- ◎ 불자라면 누구나 재적사찰에서 신도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조계종 신도등록! 불자로서의 자긍심과 함께 다양한 혜택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문화재보유시설 무료 입장  
 전국 템플스테이 사찰  
 하이원리조트(숙박시설 및 뷔페)  
 금호리조트(숙박 시설 6백 여명)  
 동국의료원(대한 경구 병원)  
 남양주 한양병원  
 병의원·신행생활·레저·여행·문화·생활 서비스 등 사업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조계종 신도멤버십 사이트 [www.신도멤버십.kr](http://www.신도멤버십.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강원 삼성병원  
 연우치과  
 여흥사(대승어사 세종역에서)  
 전국 불교용품점  
 (주)조계종출판사  
 문의: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 02)2011-1904